**다이아몬드 후지**

다이아몬드 후지란 후지산 정상 너머로 태양이 뜨거나 지는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경치를 말합니다. 후지산의 상징적인 실루엣 위로 태양 빛이 겹치며 아주 잠깐 동안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. 프로와 아마추어에 상관없이 수천 명의 열성적인 사진가들은 이 다이아몬드 후지를 카메라에 담으려 도전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. 특히 아침에는 계획과 인내,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
**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**

지축의 기울기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방향과 각도가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각도도 달라지지만,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가 좋습니다. 후지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야마나카코 호수의 경우, 10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의 기간에는 호안을 따라 매일 저녁 어디에서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나가이케신스이 공원과 히라노 호반, ‘교류 플라자 기라라’도 인기있는 감상 명소입니다. 호수면이 잔잔할 때는 후지산의 정상으로 태양이 지는 모습이 호수면에 반사되는 매우 귀중한 ‘더블 다이아몬드 후지’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.

**아침의 보석**

아침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보려면 해가 뜰 때 후지산의 서쪽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 후지 5호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모토스코 호수 주변에는 안성맞춤인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. 1월 1일에는 모토스코 호수 남쪽의 류가타케 산 정상(해발 1,485m) 조금 앞에 있는 전망대가 절호의 명소입니다. 이 장소에서는 다이아몬드 후지를 오전 7시 40분 전후에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른 아침에는 꽤 춥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일출을 기다리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.